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반갑다, 에이스”

KIA 타이거즈에 복귀한 투수 윤석민이 1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6회초에 등판해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윤석민 527일만의 복귀전 1만6000여명 관중 기립박수

최고 146㎞·1이닝 2K 위력투…KIA, 1-11 LG에 대패

에이스의 화려한 귀환이었다.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이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국내 복귀 후 첫 실전피칭을 소화했다. 1만6000여 관중의 기립박수 속에 6회 마운드에 오른 윤석민은 1이닝 2탈삼진 무실점의 피칭을 선보이며 팬들의 환호에 화답했다.

18개의 공으로 3개의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윤석민은 첫 타자 안익훈을 5구 승부 끝에 2루수 땅볼로 처리한 뒤 최승준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투아웃을 채웠다. 김용의와 풀카운트 승부를 벌인 윤석민은 커브로 방망이를 헛돌게 하면서 두 개의 탈삼진과 함께 첫 실전 피칭을 마무리 지었다.

스피드와 변화구, 특유의 장점을 잘 살린 피칭이었다.

윤석민이 이날 던진 직구는 모두 7개였다. 첫 실전에서 최고 스피드는 146㎞를 찍었고 평균 구속은 145㎞를 기록했다.

윤석민표 슬라이더의 위력도 여전했다. 윤석민은 최고 137㎞의 슬라이더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으며 승부를 펼쳤다. 최승준을 돌려세운 공도 137㎞ 슬라이더였다. 체인지업 최고 구속은 130㎞. 커브는 두 개밖에 던지지 않았지만 124㎞짜리 커브로 세 번째 탈삼진을 뽑아냈다.

부상에 발목 잡혔던 ‘퍼펙트 사나이’ 험버는 첫 실전 피칭에서도 울상을 지었다.

험퍼는 KIA 유니폼을 입고 처음 등판했던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첫 타자의 타구에 팔꿈치를 맞으면서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었다. 이날 재활 후 첫 등판이었지만 이번에는 손가락 찰과상을 당하면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양현종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준비한 험버는 불펜에서 나오다가 문에 오른쪽 손가락이 찢기는 부상을 입었다. 응급조치를 하고 마운드에 오른 험버는 첫 상대였던 이병규에게 144㎞짜리 직구를 얻어맞으면서 좌월솔로포를 허용했다.

험버는 최승준과 김용의를 각각 2루수 땅볼과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했지만 정의윤에게 우전 안타를 내줬다. 최경철에게는 몸에 맞는 볼을 내준 험버는 손주인을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자신의 첫 실전 등판을 1이닝 2피안타(1피홈런) 1실점으로 끝냈다.

한편 이날 경기는 1-11 패배로 끝났다. 선발로 출격한 양현종이 3이닝 4피안타 2탈삼진 3실점을 기록하는 등 LG 타선에 장단 13안타를 허용하면서 마운드가 흔들렸다.

주말 2경기에 2만9000여명의 팬이 경기장을 찾았지만 KIA는 투·타에서 집중력을 잃으며 시범경기 3연패에 빠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반겨준 팬들 큰 힘…피칭 만족스러워”

윤석민, 복귀 소감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527일 만에 KIA 윤석민으로 다시 선 시간이었다. 2013년 10월4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넥센과의 경기 이후 처음으로 KIA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른 윤석민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피칭이 만족스러웠다. 반겨주신 팬들에게 감사하다, 뭉클했다”며 복귀 후 첫 실전 등판 소감을 밝혔다.

빅리그 도전 꿈을 접고 돌아온 만큼 여러 생각이 교차하는 무대였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던 등판이기도 했다.

윤석민은 “오랜만의 실전이라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지는 않을까, 변화구 감각적인 부분은 괜찮을까 우려를 했지만 생각보다는 잘 들어갔다. 지난 시즌 너무 스피드가 나오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스피드가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우려와 달리 만족스럽고 성공적으로 그의 첫 등판이 끝났다. 1이닝 2탈삼진 무실점. 윤석민이 궁금해했던 스피드는 146㎞까지 찍혔다. 변화구 시험도 성공적이었다. 2개의 탈삼진을 뽑을 때 사용한 마지막 공은 슬라이더와 커브였다.

윤석민은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럽지만 슬라이더 각도가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다. 예전같이 채는 느낌이 부족하기는 하다. 앞으로 등판을 하면서 투구수도 늘려나가고 감을 찾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1만6000여 팬들의 함성은 윤석민에게 큰 힘이 됐다. 그를 잘 알고 배려해주는 동료도 든든하다.

윤석민은 “제 이름을 연호해주시고 반겨주셔서 감사하다. 말이 통하는 이들과 얘기를 하면서 야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좋다. 이대진 코치님도 중간 중간 포인트를 집어주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편안하게 내 자리를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유소연, 박인비에 ‘역전 드라마’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시즌 첫 승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사진)이 박인비(27·KB금융그룹)를 제치고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에서 시즌 첫 승을 거뒀다.

유소연은 15일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 미션힐스골프장 블랙스톤코스(파73, 6420야드)에서 열린 LET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60만 달러) 4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잡고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를 적어내며 4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79타를 기록한 유소연은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박인비(12언더파 280타)를 1타차로 따돌리며 올 시즌 첫 우승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 우승 이후 약 7개월 만의 우승이다.

흔들리지 않은 집중력이 돋보인 경기였다.

경기 중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며 더블보기를 낸 이후도 맹추격을 가해 2연패를 노리던 선두 박인비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다.

단독 2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유소연은 1번홀(파4)에서 보기를 냈지만, 3번홀(파4), 5번홀(파3), 6번홀(파5)에서 잇달아 버디를 낚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7번홀(파4)에서 난관에 부닥쳤다. 티샷이 해저드 울타리를 훌쩍 벗어나 카트 도로 옆 돌 사이에 떨어진 것이다.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한 유소연은 1벌타를 받고 도로 옆 자갈밭에 공을 드롭했다. 이어진 샷을 벙커에 빠트린 유소연은 2퍼트 만에 공을 홀컵에 넣고 더블보기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유소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9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고 11번홀(파3)과 12번홀(파5)에서 잇달아 버디를 추가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박인비도 유소연의 추격을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박인비는 16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다시 공동 선두를 만들었다. 그러나 유소연은 17번홀(파4)에서 다시 버디를 추가하며 재역전에 성공했다.

안신애(25·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는 이날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70타를 치고 최종합계 6언더파 286타를 기록하며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29개 대회 총상금 184억원

KLPGA 일정 확정…역대 최대

2015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총 29개 대회에 총상금 약 184억 원, 평균상금 약 6억3000만 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KLPGA에 따르면 대회 수는 지난 시즌 27개에서 2개 대회가 늘었으며, 총상금액은 165억 원에서 약 184억 원으로 19억 원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현대차 중국 여자오픈으로 시작한 2015시즌 KLPGA투어는 4월 9일 롯데마트 여자오픈으로 국내 개막전을 치른 뒤, 7월 넷째 주에 열리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까지 16주 연속으로 열린다.

8월 셋째 주부터는 7주 연속으로 10월 셋째 주부터 4주 연속으로 대회가 열리는 등 한 시즌 동안 바쁜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연합뉴스